

##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조성<sup>1)</sup>

강 상 준<sup>2)</sup>

충북대학교 명예교수·협회 충북지부장

###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지방행정의 중심 이념이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이어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 및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도시 등의 개념이 주 의제로 논의되었는데,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강조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의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시 및 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아무런 이이가 없을 것이다. 비도시 지역에서도 난개발과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자연경관의 훼손, 녹지축의 단절과 녹지의 감소, 각종 생활환경의 악

화 등 지역 환경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환경보전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시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작금에 이르러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파괴가 당연시되던 성장 제일주의는 이제 설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이루어야 하며 생태적 가치와 보전이 강조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가 인간에게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그 한 가지 방안으로서 도심 내 생태공원을 만들거나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학교 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

1)Creation of Greenery Space in Remnant Ground of Downtown

2)KANG, Sang-Joon, Emeritus Pr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of Chungbuk Chapt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E-mail: kangsj@chungbuk.ac.kr

## 도시 녹지

녹지(greenery space)란 임지, 수풀, 초지, 농경지, 물가, 습지 등 식물로 피복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도시에 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주로 자치단체나 ‘생명의 숲’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유효한 녹지, 합목적적으로 효율적인 녹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주민의 바라는 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6년 2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의제21」 재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할 “자연자원 및 생태분야”의 내용에서 보면,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에 있어 자원관리 분야의 실천 노력이 중요하므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함께 물과 토지 등 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의제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2) 농업, 습지, 산림과 녹지, 하천 등 생태분야는 물론 자원 관리 측면에서 생물다양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김병완 등, 2006).

또한 2006년 6월 4일에는 정부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중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면,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2005년 9.7%에서 2010년에는 11.0%로, 1인당 공원면적은 2005년 8.2 m<sup>2</sup>에서 2010년에 9.8 m<sup>2</sup>로 하는 등 17개 이행과제 89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보도자료 2006.10.).

특히 도시민의 녹색갈증(biophilia)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녹지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도심녹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도시 내 1인당 공원면적의 상향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최근 도시의 열섬현상이 해마다 반복, 증

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의 기온저하에 큰 역할을 하는 녹지 조성이나 수면의 창출은 도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중요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저감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므로 그 요청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도시 및 지역의 환경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나무가 우거진 숲, 아름다운 경관 등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연 및 생활환경속에서 숨 쉬고 뛰어 놀며 자연을 노래하고 싶어 한다(변병설 등, 2004).

외국에서는 지속가능 도시 혹은 생태도시를 추구한지 오래다. 서구의 경우 전원도시,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 녹색도시(green city), 에코폴리스(oecopolis)를, 일본의 경우 에코시티(eco-city), 어메니티 도시(amenity city), 환경보전형 도시 등을 목표로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권용우, 1998; 최병환, 2004; 한국도시연구소, 1998; 동경도, 1996).

서울시는 2006년 10월부터 주택가, 도로 주변의 공터, 지하철역 출입구 등 서울시내의 구석구석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찾아 녹지화 하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 공모를 통하여 221곳을 발굴하였다고 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7천509 m<sup>2</sup> 규모의 자투리땅이 녹지로 바뀌게 된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1억 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하나로 시민 공모를 통해 발굴한 자투리땅 가운데 우선 8곳 1만여 평에 대한 녹화사업을 2006년 10월까지 실시하였다. 연차적으로 자투리땅을 찾아내어 식재 분수를 늘려 1억 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도 「의제21」 실천계획의 하나로 ‘도심 내 자투리땅 찾아 나무 심기’나 ‘학교 숲 조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생활 주변의 녹화 가능한 자투리땅, 주택지, 아파트 주변 공지, 공동주택 내 빈터, 다중 이용 건물 주변 빈터, 보도와 건물 사이의 빈터, 도로변 넓은 빈터, 하천변 공지, 각종 불법 경작지 및 학교 교정의 빈터 등을 대상으로 나무심기를 계획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녹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도시 내 또는 인근에서 대규모의 공원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한 도시 녹지를 확충하는 효율적인 녹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저감, 도시의 기온과 습도 조절을 통한 열섬현상의 저감, 소음의 감소, 여가와 휴식의 장소 제공, 정신적, 심미적 안정성 유지, 도시 경관의 창출, 야생동식물의 biotope 확보 등 자연과 도시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의 수목

도시의 녹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것은 수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민이 바라는 도시 녹지는 자연 상태의 숲과는 다른 것일 것이다. 자연에는 1차적 자연과 2차적 자연이 있다. 1차적 자연이란 사람의 손길이 전연 닿지 않은 또는 거의 가해지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으로 깊은 산속의 숲(삼림)이고, 2차적 자연이란 사람의 손이 닿은 또는 손이 가해져야만 유지되는 자연으로서 농경지, 식재지, 초지 등과 같이 인간이 이용하거나 만들어가면서 유지되는 그런 자연이다. 더욱이 공원 녹지나 정원, 가로수, 집 뜰에 심은 나무, 화단, 화분과 같이 온전히 사람이 만든 것을 3차적 자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제21」에서 요구하는 도시의 녹지 조성은 2차적 자연 또는 3차적 자연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변 가로수의 경우,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식생대 분포를 고려

표 1. 청주시 가로수 종류와 식재 본수

수종	본수	%	노선 수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	9,734	24.8	62
양버즘나무( <i>Platanus occidentalis</i> )	7,344	18.7	40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	5,825	14.9	32
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	4,209	10.7	11
이팝나무( <i>Chionanthus retusa</i> )	3,720	9.5	10
메타세쿼이아( <i>Metasequoia glyptostroboides</i> )	2,990	7.6	7
무궁화( <i>Hibiscus syriacus</i> )	1,885	4.8	3
회화나무( <i>Sophora japonica</i> )	1,753	4.5	11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i> var. <i>japonica</i> )	825	2.1	7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	286	0.7	5
노각나무( <i>Stewartia koreana</i> )	225	0.6	1
목련( <i>Magnolia kobus</i> )	171	0.4	3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	107	0.3	1
귀룽나무( <i>Prunus padua</i> )	60	0.2	1
철엽수( <i>Aesculus turbinata</i> )	27	0.07	1
튜울립나무( <i>Liriodendron tulipifera</i> )	24	0.06	3
16종	39,185	100	198

하여 수종을 선정,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표 1은 청주시에 식재된 가로수의 현황이다. 청주시 198개 노선의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가운데 은행나무 24.8%, 프라타너스(양버즘나무) 18.7%, 느티나무 14.8%, 벚나무 10.7%, 이팝나무 9.5% 등 총 16종 39,185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충북생명의 숲 2004).

특히 청주시 관문의 상징적인 프라타너스 가로수 터널은 1953년경에 1,500여 그루가 심겨진 가로수로 한국의 근대화를 바라보면서 자란 나무들이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고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아름다운 가로수는 이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전남 담양읍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1970년 초 8.5 km의 국도변 양쪽에 식재된 것으로 2002년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꿈의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이들 가로수들은 외래수종을 위주로 선정, 식재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지역에 자생하는 향토색이 물씬 풍기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5일 행정자치부와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공원, 도로, 숲, 마을, 자연경관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북 의성군의 ‘산수유 꽃피는 마을’이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마을은 100년 이상 된 산수유 수천 그루가 심어져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 마을처럼 도심의 빈터에도 그 지역의 나무와 풀을 이용하여 녹지를 조성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도심지의 나무는 가로수를 비롯하여 학교 울타리의 나무들, 주민이 자기 취향에 따라 집에 심은 나무들, 빈터에 식재되었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침입, 정착한 다양한 나무들이 도시의 입체적인 녹지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정서적 심미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 도시 주택지의 수목

Iizumi(1979)는 도시 내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개체군을 다음과 같이 5개 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제1그룹은 도시민들에게 거의 개방되지 않은 사원이나 사찰, 또는 고궁의 보호림, 제2그룹은 가로수나 도시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 제3그룹은 주택지, 생활터 등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 제4그룹은 화분이나 상자에 식재하여 집 앞에 내놓은 PET 식물들 그리고 제5그룹은 길가 잡초나 귀화식물과 같은 식물군이 그것이다.

제3그룹인 도시의 주택지에는 어떤 수종들이 심겨져 있을까? 서울의 가회동, 압구정동, 청담동 그리고 과천시에서 주택가에 식재된 수목의 종류와 개체수를 조사한 일이었다. 즉 주택가의 길을 따라 2시간 동안 1-2 km를 걸어 다니면서 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수고 2-3 m 크기의 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Kang et al., 1984).

표 2는 서울시 주택지의 수목상과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오래된 주택지인 가회동에서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20.2%로 가장 많았고 라일락(*Syringa vulgaris*) 8.8%, 가이쓰카향나무(*J. chinensis* var. *kaizuka*) 5.6%, 밤나무(*Castanea crenata*) 4.6%, 백목련(*Magnolia denudata*) 및 자목련(*M. denudata* var. *purpurascens*) 4.3%, 은행나무(*Ginkgo*

표 2. 서울시 주택가의 수목상과 비율(%)

수종	가회동	압구정동	청담동	과천시	평균
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	20.2	13.1	5.9	-	9.8
라일락( <i>Syringa vulgaris</i> )	8.8	1.8	8.3	6.9	6.5
가이즈카향나무( <i>J. chinensis</i> var. <i>kaizuka</i> )	5.6	5.8	12.2	-	5.9
장미( <i>Rosa</i> spp.)	5.3	6.0	12.6	6.1	7.5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4.6	-	-	-	1.2
목련( <i>Magnolia</i> spp.)	4.3	8.8	5.1	-	4.6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	4.0	10.8	2.8	-	4.4
릿대추( <i>Zizyphus jujuba</i> )	4.0	-	3.1	-	1.8
단풍나무류( <i>Acer</i> spp.)	3.6	7.5	6.7	21.6	9.9
감나무( <i>Diospyros kaki</i> )	3.6	-	-	-	0.9
가죽나무( <i>Ailanthus altissima</i> )	3.6	-	-	-	0.9
아까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i> )	3.3	-	-	-	0.8
개나리( <i>Forsythia koreana</i> )	3.0	2.5	11.8	2.1	4.9
측백나무( <i>Thuja orientalis</i> )	2.3	7.5	-	-	2.5
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	2.0	1.5	-	3.5	1.8
복사나무( <i>Prunus persica</i> )	2.0	-	-	0.4	0.6
주목( <i>Taxus cuspidata</i> )	1.7	-	-	0.4	0.5
야광나무( <i>Malus baccata</i> )	1.7	-	-	0.4	0.5
양버즘나무( <i>Platanus occidentalis</i> )	1.3	1.3	-	-	0.7
사과( <i>Malus pumila</i> var. <i>dulcissima</i> )	1.3	-	-	-	0.3
전나무( <i>Abies holophylla</i> )	1.0	4.8	1.2	1.1	2.0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	1.0	0.5	0.8	2.4	1.2
등( <i>Wistaria floribunda</i> )	1.0	-	2.4	-	0.9
오동( <i>Paulownia coreana</i> )	1.0	-	-	-	0.2
미류나무( <i>Populus deltoides</i> )	1.0	-	-	-	0.2
일본잎갈나무( <i>Larix leptolepis</i> )	0.7	0.5	-	-	0.3
일본목련( <i>Magnolia obovata</i> )	0.7	4.0	3.5	-	2.1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	0.7	0.3	0.4	-	0.4
박태기나무( <i>Cercis chinensis</i> )	0.7	-	0.4	4.0	1.3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	0.7	5.3	0.4	-	1.6
섬잣나무( <i>Pinus parviflora</i> )	0.3	1.5	1.6	2.9	1.8
무궁화( <i>Hibiscus syriacus</i> )	0.3	1.0	-	0.3	0.4
모과나무( <i>Chaenomeles sinensis</i> )	0.3	-	-	0.8	0.3
벽오동( <i>Firmiana simplex</i> )	0.3	-	-	-	0.08
포도( <i>Vitis vinifera</i> )	0.3	0.3	1.2	-	0.5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	0.3	-	-	0.3	0.19
자귀나무( <i>Albizia julibrissin</i> )	0.3	-	-	-	0.08
협죽도( <i>Nerium indicum</i> )	0.3	-	0.8	-	0.3
두릅나무( <i>Aralia elata</i> )	0.3	-	-	-	0.08
계수나무( <i>Cercidiphyllum japonicum</i> )	0.3	-	0.4	-	0.18
당중려( <i>Chamaeropus fortunei</i> )	0.3	-	-	0.4	0.18
산초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	0.3	-	-	-	0.08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	0.3	-	-	-	0.08

표 2. 계속

수종	가회동	압구정동	청담동	과천시	평균
산뽕나무( <i>Morus bombycis</i> )	0.3	-	-	-	0.08
으름( <i>Akebia quinata</i> )	0.3	-	-	-	0.08
회양목( <i>Buxus microphylla</i> var. <i>koreana</i> )	0.3	7.5	1.6	0.8	2.6
아그배나무( <i>Malus sieboldii</i> )	-	2.5	-	-	0.6
메타세쿼이아( <i>Metasequoia glyptostroboides</i> )	-	2.0	-	18.7	5.2
은사시나무( <i>Populus tomentiglandulosa</i> )	-	1.0	-	-	0.25
조록싸이( <i>Lespedeza maximowiczii</i> )	-	1.0	-	-	0.25
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	-	0.8	2.4	-	0.8
앵도( <i>Prunus tomentosa</i> )	-	0.3	0.4	0.5	0.3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	-	0.3	-	0.8	0.28
잣나무( <i>Pinus koraiensis</i> )	-	-	1.2	6.6	2.0
매실나무( <i>Prunus mume</i> )	-	-	-	0.8	0.2
두충( <i>Eucommia ulmoides</i> )	-	-	0.4	-	0.1
참배( <i>Pyrus ussuriensis</i> var. <i>macrostipes</i> )	-	-	0.4	-	0.1
솔송나무( <i>Tsuga sieboldii</i> )	-	-	0.4	-	0.1
살구( <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	-	-	0.4	-	0.1
호랑가시나무( <i>Ilex cornuta</i> )	-	-	0.4	-	0.1
능소화( <i>Campsis grandiflora</i> )	-	-	0.4	-	0.1
병꽃나무( <i>Weigela subsessilis</i> )	-	-	0.4	-	0.1
계	46종	28종	31종	22종	

*biloba*) 4.0% 그리고 뽕대추(*Zizyphus jujuba*) 4.0% 등 46종 302개체,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향나무 13%, 꽃단풍(*Acer rubrum* var. *pycnanthum*) 7.5%, 측백나무(*Thuja orientalis*) 7.5%, 전나무(*Abies holophylla*) 4.8%, 은행나무 10.8%, 백목련 및 자목련 8.8%, 장미(*Rosa* sp.), 가이쓰카향나무 등 28종 398개체, 청담동에서 장미류 12.6%, 가이쓰카향나무 12.2%, 개나리(*Forsythia koreana*) 11.8%, 라일락 8.3% 등 31종 254개체 그리고 과천시에서 단풍류 21.%,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glyptostroboides*) 18.7%, 라일락 6.9%, 장미류 6.1%, 잣나무(*Pinus koraiensis*) 6.6% 등 22종 379개체가 식재되어 있었다.

이들 4개 지역에 식재된 목본의 생활형 분포를 보면, 가회동에서 상록침엽수(EC) 15.2%, 낙엽활엽수(DB) 76.1%, 상록활엽수(EB) 6.5% 그리고 낙엽침엽수(DC) 2.2%이었고, 압구정동에서 EC 21.4%, DB 60.7%, EB 10.7%,

DC 7.1%, 청담동에서 EC 22.0%, DB 63.4%, EB 14.6% 그리고 과천에서 EC 22.7%, DB 72.7%, EB 4.5%로 모든 지역의 주택지에서 낙엽활엽수이다. 모든 주택지에서 생활형 점유율은 낙엽활엽수 > 상록침엽수 > 상록활엽수 > 낙엽침엽수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주시 주택지의 수목상 조사(Kang et al., 1984)나 인천시 및 부천시의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었다(최희열, 2004).

한편 식재된 목본에 대한 재래종과 외래종의 비율은 오래된 주택지인 가회동에서 재래종 52.2%, 외래종 47.8%로 재래종을 많이 식재한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외래종 식재율이 54.5%로 높았다.

비교적 오래된 주택지와 아파트단지 또는 신형 주택지와 비교해 보면, 오래된 주택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가회동에서만 식재된 수종은 밤나무, 감나무, 가죽나무, 아까시

나무, 사과, 오동, 미류나무, 벽오동, 산초나무, 상수리나무, 산뽕나무 및 으름과 같은 우리나라의 재래종인 수목이 많이 식재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지역의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정 식재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도심 내 녹지 조성의 경우, 그 지역 식생대의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충북의 『숨어있는 자투리땅 찾기』

충청북도의 면적은 남한 전체 면적의 7.5%인 7,436 km<sup>2</sup>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68%가 임야, 즉 산림으로 되어 있어 전국 지자체 중 강원도 다음으로 산림 면적이 많고 또한 녹지자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또는 도시의 확장, 대형 택지개발 단지의 조성,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유치 등은 도시민의 녹색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어 충청북도민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북도에서도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의 배후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비교적 높은 인구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각종 개발이 활발히 그리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도심 녹지공간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을 위한 실천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녹지 조성은 지자체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도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충청북도 『의제21』의 명칭은 “淸風明月 21實踐協議會”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충북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숨어있는 자투리땅 찾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시·군의 도심 내에 『숨어있는 자투리땅』을 도민 공모를 통하여 찾아내어 나무와 꽃을 심어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최소 생물 서식공간(biotope)을 만들어 줌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며, 아울러 도시민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실천사업이며 도민 참여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도시민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Catch Phrase를 내 걸고 있다.

녹화 가능한 생활 주변의 자투리땅을 찾습니다. 충북이 더욱 푸르러 집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한 뼘, 한 평, 한 구석이 라도 녹지를 조성하여 청풍명월 그대로 푸른 충북을 만들고자 나무나 야생화를 심어 녹화를 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빈터, 자투리땅이 있는 곳의 정보를 도민들로 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의 푸른 충북 가꾸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채택된 정보 제공자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추진 방법은 도시민의 정보 제안 접수→대상지 현지 실사 및 평가→녹지 조성 방법 결정→녹지 조성 추진이라는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자투리땅 정보를 제안할 때에 위치, 규모(면적), 주변 상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사업기간은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2회 실시하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도심 내 녹지 조성에서 식재될 수종은 위에서 예시된 오래된 주택지의 식재 수종과

같은 그 지역에서 자라는 재래종을 적극 권장하고, 특히 전형적인 숲의 층상구조(層狀構造, stratification)를 갖추도록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도시에서 조성된 녹지를 보면 조경학적인 관점에서 식재된 것이지 생태학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들과 다양한 곤충들을 도시 내로 유혹 또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하고 수관(樹冠)에서부터 소위 임상(林床)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나무들, 즉 교목, 아교목, 관목 그리고 초본으로 구성된 녹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류마다 곤충마다 다른 니치(生態的地位, Niche)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민 참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녹지 조성”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도시 내 또는 인근에서 대규모의 공원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한 도시 녹지를 확충하는 효율적인 녹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저감, 도시의 기온과 습도의 조절을 통한 열섬현상의 저감, 소음의 감소, 여가와 휴식의 장소 제공, 정신적, 심리적 안정성 유지, 도시 경관의 창출, 야생동식물의 비오톱 확보 등 자연과 인

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우. 1998. 생태도시계획론. 서울. 박영사.
- 김병완 · 정규호 · 오수길 · 유문중. 2006.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전략과 재작성 지침 개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p.121.
- 변병성 · 박성혜 · 배수진. 2004. 그린시티 평가 지표 적용을 통한 서울시 환경행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55.
- 최병환. 2004. 생태도시의 철학적 고찰. 『미래 도시와 환경』.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 최희열. 2004. 도시지역의 식생조성과 종 다양성 비교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30.
- 충북생명의 숲. 2004. 청주의 가로수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리 숲”. 충북생명의 숲. p.55.
- 한국도시연구소. 1998. 생태도시론. 서울. 박영사.
- Iizumi Shigeru. 1979. Plants in Streets -A Case of Sendai, Japan-. Kagaku. 49: 671-674.
- Kang, Sang-Joon, Koichiro Hibino and Shigeru Iizumi. 1984. A Survey in Trees of the Residential Districts of Seoul and Cheongju, Korea. Ecol. Rev. 20: 189-203.